人民网 people.cn

중한 뉴스 번역과 동시통역 실무경험담

2022.06.18.

인민망 한국대표 저우위보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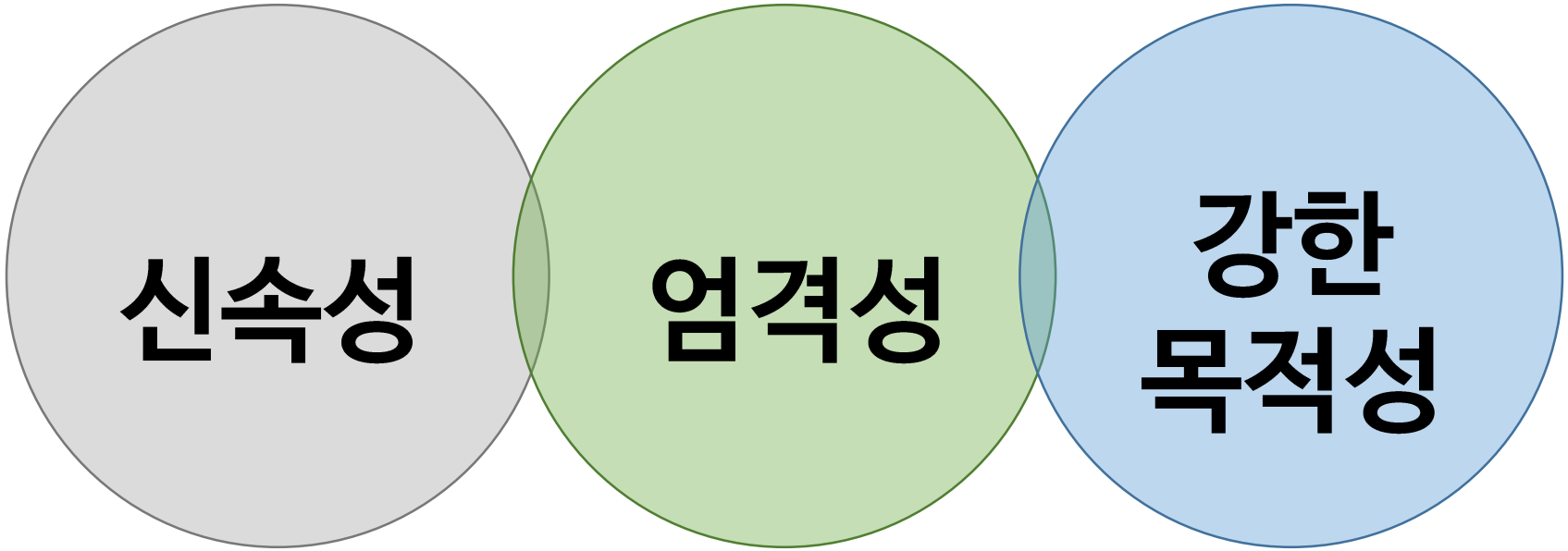
(1) 국제뉴스 번역의 특징

(2) 인민망 소개 및 기사 보도 과정

(3) 인민망 기사의 중한 번역에 있어 고려할 점

(4) 남겨진 과제 및 개선해야 할 점

(1) 국제뉴스 번역의 특징



- 모든 유형의 뉴스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구는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 보도하는 것, 즉 신속성입니다.
- 국제정치 뉴스의 보도와 번역 과정에서 원문 기사의 의도와 다른 번역은 국가 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주관적인 추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제 뉴스의 보도 주체는 정부나 기업, 조직단체 혹은 개인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 뉴스의 보도 주체는 사실상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표에 영향을 미치며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10대 신문 중 하나

1948년 6월 15일 창간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국 제1의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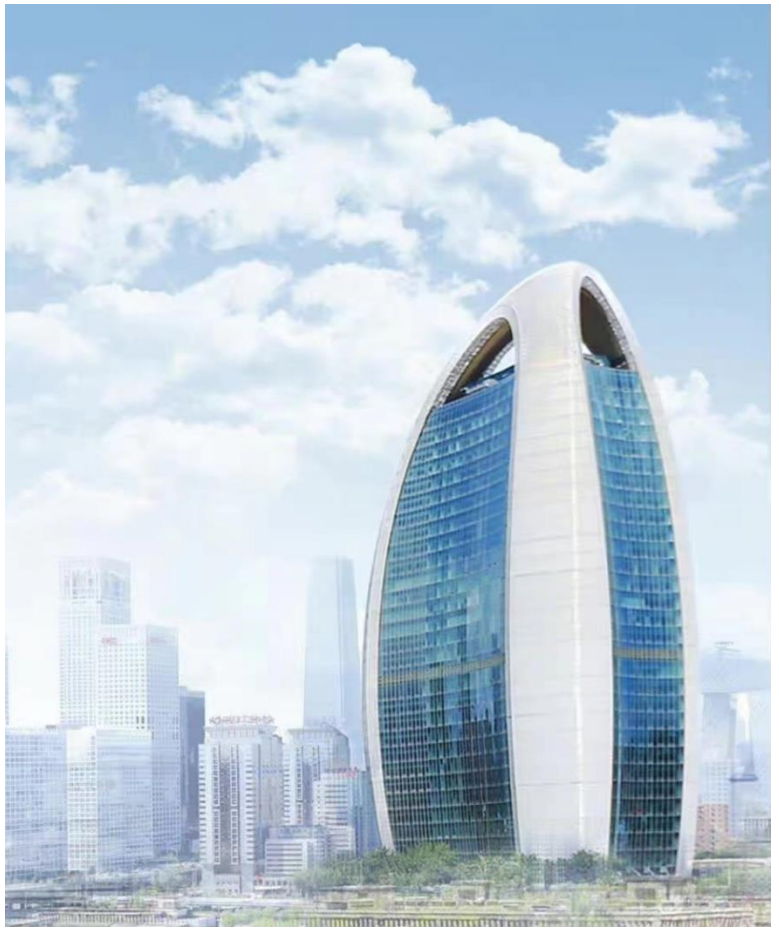
일 발행 부수 330만

산하 <환구시보> 등 20여 종의
신문과 간행물 발간

중국 국내 지사 33개
해외 지사 39개

인민망 – 인터넷으로 만나는 인민일보

- 1997년 1월 1일 정식 출범
- **중국 온라인 매체 종합 영향력 1위**
- 매일 2만 개 이상의 뉴스 콘텐츠 생산
- **하루 평균 접속자 수 4억 ~ 7억**
- 중국 관영 매체 최초로 상하이 증시 상장
- 중국 공산당, 정부, 대형 국유기업 고위 간부의 필독 사이트
- 중국 고소득, 고학력층이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네티즌이 중국을 이해하는 1호 사이트
- **중국 국내 지사 33개와 해외 지사 15개 운영**
-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등 9개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인민망 소개 및 기사 보도 과정

한국어판 kr.people.com.cn

- 한글로 만나는 온라인 인민일보
- 매일 실시간 중국 내 뉴스 및 사회 정보 제공
-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등록된 유일한 중국 언론매체**

❶ 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피니언으로 구성

중국 최신 뉴스 실시간 업데이트

❷ 인민망 특별 기획

문화, 역사,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특별 기획하여 전달

❸ 매일 3분 고사성어

생동감 넘치는 중국어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중국 고사성어에 담긴 이야기를 만화로 제공하는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❹ 한·중 교류

한·중 양국의 교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2) 인민망 소개 및 기사 보도 과정

(주)피플닷컴코리아

중국 언론사 최초,

유일한 현지 법인

- 2011년 11월 서울에 설립된 인민망의 해외 단독 투자 자회사
- 중국 내 최고의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미디어 사이트
- 인민망 한국채널과 한국어판 운영을 통해 한-중 양방향 보도 실현
- 한국에 중국을 보도하고 중국에 한국을 알리는 가교 역할 수행
- 한·중 지자체, 기업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한·중 유관기관의 對 중국(한국) 언론 홍보
- 심포지엄, 포럼, 아카데미, 세미나, 홍보행사, 문화교류 행사 주관 및 지원

(2) 인민망 소개 및 기사 보도 과정

인민망 한국어판 모바일 버전

- 보도 내용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각양각색의 중국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 인민망의 보도는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번역자, 기자, 에디터가 상호작용하는 집단적 작업이며 번역자, 기자, 에디터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의 집단적 의사결정 및 책임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Ⅰ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

① 중국에서 쓰는 단어라 해도 과도한 중국식 표현은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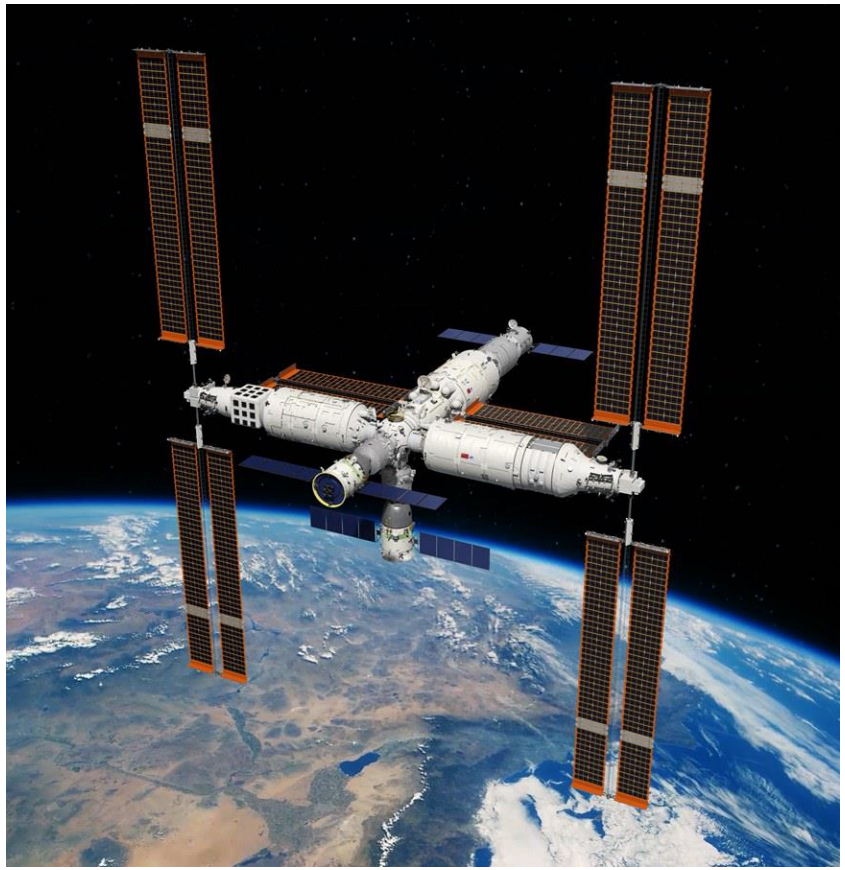
[원문 기사]

2019年至今先后荣获专运先进个人，客运提质先进个人等各类荣誉19项。

[1차 번역]

2019년부터 지금까지 특별운송 선진개인, 여객운송 품질향상 선진개인 등 각 부문에서 19개 상을 수상했다.

※ 우주정거장 톈궁(天宫),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등은 고유명사처럼 중국어음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어 원문 기사 "'吉林一号'宽幅01C星"에서 宽幅는 중국어음 그대로 '콴푸'로 할지 한자음인 '관폭'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톈궁이나 선저우, 지린과는 달리 언론사마다 콴푸, 관폭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기사가 나갔는데요. 인민망에서는 내용을 한국어로 풀어 '지린(吉林)1호' 광대역 01C 위성'으로 최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초고화질 약도

Ⅰ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

② 부사나 형용사의 습관적 중복 사용 자제 및 표현 순화

- ‘매우’나 ‘잘’ 같은 부사가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형용사가 반복해서 들어갈 경우 최대한 삭제해 번역합니다.
- 원문에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찬양의 색깔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대한’을 ‘훌륭한’으로 번역하거나 상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줄입니다.

③ 중국 전통 명절 및 공휴일 명칭의 번역

- 예전에는 중국 전통 명절 및 공휴일을 번역할 때 ‘돤우제(端午節, 단오절)’나 ‘라오둥제(勞動節, 노동절)’ 등 중국어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오절이나 노동절은 한국에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력과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도 있는 명절은 한국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④ 수식어 번역에 있어 설명을 따로 추가

- “华为CEO任正非”는 “중국 대표 통신업체 화웨이 대표”라고 설명을 추가해 번역하면 더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II 보도 주체 입장을 고려한 번역

① 중국 대륙을 지칭할 때 홍콩은 본토, 타이완은 대륙이라고 함

- 예를 들어, 기사를 보면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홍콩과 본토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에서 홍콩에 대응해 ‘본토’라고 썼습니다.
- “2022 해협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 용선경기가 6월 2일과 3일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에서 열렸다.”에서 타이완에 대응해 ‘대륙’이라고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북한을 ‘조선’이라고 번역

- **[원문]** 外交部回应“朝鲜发现新冠肺炎确诊病例”表示，中方随时准备为朝方抗击疫情全力提供支持帮助。
- **[번역문]** 외교부는 ‘조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에 관해 중국은 언제든 조선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③ 국가별 언급 순서

- 인민망 한국어판은 주로 한국인 독자들에게 중국어 원문 기사의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中日韩’을 한 · 중 · 일이 아닌 중국어 원문 순서 그대로 중 · 일 · 한이라고 번역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Ⅲ 뉴스 보도의 특징을 고려한 번역

① 제목 번역

- 제목의 번역에 있어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합니다.
- 정치나 경제 기사보다는 문화나 연예 관련 기사의 제목을 번역할 때 의역도 많이 들어가고 형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② 외국어 명칭 번역의 통일화

- 영어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기존의 보도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처음 나오는 단어나 행사 명칭일 경우에는 약자 외에도 최대한 전부 쓰려고 합니다.

③ 약칭 아닌 정식 명칭

- 중국어 원문에 부서 명칭이 약칭으로 쓰여 있어도 기사에서 처음 쓸 때는 꼭 검색을 통해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을 찾아 써 줍니다.
  예로 科技部는 과기부가 아닌 과학기술부로,
  央行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으로,
  人社部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번역합니다.

Ⅰ 친절한 첨부 내용이 정보 전달에 미치는 영향

[원문]

临近端午节，成都市驷马桥街道马鞍东路上20多家粽子店铺生意火爆。

[번역]

단오절(端午節)을 맞이해 청두(成都)시 스마차오(駟馬橋)가도[街道: '구'(區) 아래의 작은 행정단위로 한국의 '동'에 해당] 마안둥(馬鞍東)로에 있는 쫑쯔(粽子: 찹쌀을 삼각형 모양으로 대나무 잎에 싸서 찐 음식)가게 20여 곳이 쉴 새 없이 바쁘다.

※ 이럴 경우 첨부해야 할 한자('단오절', '청두', '스마차오', '마안둥')도 많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단어의 부가 설명('가도', '쭝쯔')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기사 내용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사가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단오절을 맞이해 쭝쯔 가게 호황'이라는 내용이 모호해지며 독자 전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기존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광시(廣西) 주민들이 쭝쯔를 만들고 있다.

II 국제정치 '뉴스'인가, '국제정치' 뉴스인가 중요도 문제

- 인민망의 보도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많고 그만큼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많은 감수의 과정을 거치며 최대한 다시 수정할 일이 없도록 준비하며 제목이나 내용 번역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단어 번역 하나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신중히 처리합니다.

III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

- 인민망 한국어판 기사는 대내 보도가 아닌 대외 보도를 위주로 해외 한국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뚜렷한 보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라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으며 어떤 부분들은 외국 독자들에게 있어 이해되지 못하고 심지어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어휘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 특히 국제정치 뉴스의 번역은 국가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인민망 한국어판이 나아갈 방향

인민망 한국어판은 단순히 중국의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해 중국의 입장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국가 간 활발한 교류를 상호 전달함으로써 정보 교환이라는 역할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국제언론 매체로서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업계 1위가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한국인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연구합니다.

소통과 교류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먹을 때 남방과 북방이 다르지만 그 이유와 그 문화를 외국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민망 한국어판은 번역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더 친절하고 품질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회의 주최자 입장에서 본 동시통역사가 범하기 쉬운 실수

Thank you